

월간

제 54 호 2008년 3월 1일
서울대 기독교교회 소식지

진리는 나의 빛

이달의 말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안에 내가 저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요한복음 15장 5절

편집인 겸 발행인 · 유은상 / 학생편집 기자 · 김 다은 / 발행처 · 서울시 관악구 신림2동 103-170 대학촌 교회내 / TEL · 888-9111 / FAX · 888-9112

2008, 1학기 개강예배

개강예배가 3월 10일 오후 6시, 26동 108호에서 드려진다. 서울대학내의 기독교생, 기독교수, 기독교직원이 함께 모여서 새해 첫학기가 시작되는 이때 진리와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예배하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다짐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선하신 인도를 간구하는 시간을 갖는다. 각 단과대학의 기독교인 모임, 과별 기독교인 모임, 그리고 각 선교 단체가 마음을 모아 기도도 준비하고 있다.

서기연 지도부의 새얼굴



(사진 임성호 서기연대표)

지금까지 서기연 대표로 섬겼던 임현우형제(언어 03학번)가 이번 신입생 OT의 준비를 끝으로 사역을 끝내고 박진호 형제(화학 생명공학부 05 학번)가 그 후임으로 새로운 사역을 시작한다. 또한 서기연 지도교수로 수고하셨던 최종근 교수(에너지자원공학과)와 함께 안성훈 교수(기계항공공학부)가 서기연 지도교수로 섬기게 된다. 많은 기도의 후원을 요망한다.

개강예배
일시 : 3월 10일 늦은 6시
장소 : 26동 108호

개강예배는 학생과 교수, 교직원 및 선교단체 사역자 등 서울대의 모든 기독교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드리는 연합예배입니다. 예배로 시작되는 대학생활을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기독교인 오리엔테이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강사
최종근 교수(에너지자원공학과)
안성훈 교수(기계항공공학부)
박동열 교수(불어교육과)
유요민 교수(종교학과)

교수님과 선배들과 함께 각 단과/과별로 모여 함께 아는 자리입니다.
주제별 선택특강(공부, 신앙, 사회 일반 등)과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일시 : 3월 14일~3월 16일
등록 : club.cyworld.com/snu08
장소 : 광림교회 수도원
등록문의 : 김학봉 (캠공 06) 010-2975-8759

서울대 기독교인 연합

2008, 서울대 기독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12번째로 열리는 서울대 기독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 3월 14일-16일 광림교회 수양관에서 열린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모임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서 승리하는 삶, 캠퍼스에 보내심을 받아 빛으로 소금으로 사는 삶에 초점이 맞추어질 것이다. 전체가 함께하는 모임, 주제별로 분반해서 참여하는 선택특강, 단대별 모임, 과별모임, 교수님과의 만남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 될 예정이다. 기독교신입생들 이외에 기독교선배들은 물론이고 40여명의 기독교수들도 여기에 참여한다.

등록 : club.cyworld.com/snu08
등록문의 : 김학봉 / 캠공 06 (010-2975-8759)

서울대 선교후원과 기도의 밤

지난 1월 25일 오후 4시 30분부터 기독교 대학촌 선교회 (이사장 이복영장로)가 주최한 “서울대 기도후원과 선교의 밤”이 서울대학교 교수회관에서 은혜 가운데 열렸다. 기독교수들, 기독교학생들, 선교단체의 간사들과 서울대 선교를 위해서 관심을 갖고 늘 기도해 오던 이들이 한자리에 함께 모인 이날의 모임은 예배, 선교보고, 그리고 식사와 친교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김성현 장로(대학

촌교회)의 인도로 진행된 예배에서 박영범 목사(대학촌교회)의 “오직 나의 신으로”라는 제목의 설교가 있었다. 홍종인교수의 캠퍼스 사역보고, 유상임교수(서울대학교교회 상임위원, 재료공학부의 서울대 비전 이야기, 임현우(서기연 대표) 김세준(자연대 기연 대표) 김수봉(CCC간사)의 서울대 선교 현장 간증과 보고가 있었다. 강신후교수가 인도한 합심기도의 순서들에 이어 선교를 위한 헌금이 있었다. 이 헌금은 2008 신입생 OT를 위해서 쓰이도록 이 자리에서 전달 되었다.

진리는 나의 빛 칼럼



‘섬김의 리더십’이란 무엇인가?

요즈음 유난히 자주 듣게 되는 이 문구와 같이 이 시대는 섬김의 리더를 원한다. 리더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본받을만한 영국의 윌리엄 윌버포스 (William Wilberforce, 1759~1833)를 소개하며 섬김의 리더란 어떤 사람인지 한 번 생각해 본다.

윌버포스는 대학생 때인 스물 한 살에 하원의원에 당선되어 자신이 원한다면 앞으로 영국의 총리를 할 수도 있는 촉망 받는 정치가요 당대의 유명한 웅변가였다. 그는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 후 노예무역을 철폐하는 데 그의 인생을 바쳤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앞

에 두 가지 커다란 목표를 두셨다. 하나는 노예무역을 근절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관습을 개혁하는 것이다”라고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에 헌신했다.

당시 영국은 세계최고의 해군력을 바탕으로 하여 세계에서 제일 가는 노예무역국이였다. 약 150년간 200만 명의 노예를 수송하는 노예무역은 영국 국가

‘섬김의 리더십’이란 무엇인가?

수입원의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여서, 그 누구도 국가 이익에 반대되는 노예무역 철폐를 감히 주장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윌버포스는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고 40년 이상 걸친 의회에서의 연설과 논쟁을 통해 의원들의 마음을 변화시켰으며, 마침내 노예무역 및 노예제도 폐지 법안을 통과시켰다.

또한 그는 영국사회의 문제점을 지적하여 어린이 노동보호법 제정, 복권 폐

지, 야만적 형벌제 폐지 등 여러 관습의 개혁과 도덕성의 회복을 주도했다. 그 결과 주일에 술집이 영업을 하지 못했고, 귀부인들이 봉사에 앞장 섰고, 영국 가정마다 가정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 윌버포스는 ‘하나님의 정치가’, ‘영국의 양심’이라고 불렸으며, 정치적으로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여 리더가 되는

길을 버리고 약한 자를 위해 자신의 영향력을 사용하며 그들을 끝까지 섬김 ‘섬기는 리더’의 한 전형이다.

21세기는 평신도 사역이 중요한 시대라고 한다. 윌버포스와 같이 평신도로서 자신의 전공 분야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시대를 주도하고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 이 땅에서도 일어서야 한다. 이제 정치, 경제, 과학, 기술, 문화, 예술 등 각 분야에서 그리

스도인들이 빛으로 일어나 ‘한국의 양심’이라고 불리며 교회와, 우리나라와, 세계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한다.

특히 오는 3월 14일부터 16일까지는 2008학번 신입생을 위한 서울대 기독교인 오리엔테이션(OT)이 이사야서 60장 1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광림교회 수도원에서 열린다. 이 OT에서 올 해 하나님께서 서울대에서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보기 원하며 교수, 학생, 교직원, 선교단체 간사님을 포함한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다. 아무쪼록 이 말씀과 비전의 잔치인 OT에 많은 서울대 기독교인, 특히 신입생들이 동참하고, 섬김의 리더로 일어나 빛을 발하는 비전을 갖게 되기를 기대한다.

2008. 2. 12

안성훈교수/서기연 지도교수, 기계항공공학부

서울대학교회는

그리스도의 명령을 순종하여 캠퍼스를 복음화 하며, 나아가 민족과 세계선교에 헌신하고 이 사명에 따라 각 영역에서 교수, 교직원, 학생들을 그리스도의 충성된 복음의 일군으로 세워나감으로써 이 시대의 영적 부흥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또한 우리는 캠퍼스 선교에 헌신하는 모든 복음주의적 지역교회와 선교단체 및 기독 동문들과 연합하여 복음주의 학생 운동을 창출하고 지원합니다.

서울대학교회 정기모임 및 사역들

- ▶ **예배 안내**
 - 1. 주일예배 : 주일 오후1:30 26동
 - 2. 국제예배 : 주일 오전11:00 26동
 - 3. 수요채플 : 수요일 오후6:30 26동
 - 4. 새벽예배 : 월-토 오전 6:30
기숙사 920동 지하
- ▶ **목장모임 안내**
 - 1. 목장 모임 : 매주일 예배 후 (한글 21개의 목장)
 - 2. 목자모임 - a. 리더십 모임 : 매주 금요일 오후6:00 기독인 회관
 - b. 목자 모임 : 매월 첫째 토요일 오후 6:00 기독인 회관, 매월 셋째 주일 오후6:00 기독인 회관
- ▶ **교육 프로그램**
 - 1. 새가족 양육모임 : 매주일 오전 11:30 25동
 - 2. 알파코스 : 매주일 오전 11:30 25동 (매학기 실시)
 - 3. 성경학교 : 봄학기(3월 둘째 주-6월 중순까지), 가을학기(9월 둘째 주 - 12월 중순까지)
 - 4. 전도폭발훈련 : 매주 목요일 오후 6:30 25동 2층 세미나실(매학기 실시)
 - 5. 제자학교(중급) : 매월 2주, 4주 토요일 기독인 회관(3월-8월 12주 과정)
제자학교(초급) : 매주 토요일 오후 6시 기독인회관(9월-12월 12주 과정)
 - 6. 내적치유학교 : 3월 중순 개강
 - 7. 결혼학교 : 3월 중순 개강(예정)
- ▶ **전도 모임**
 - 1. 주일 노방전도 : 매월 2,4주 주일 12-13시 학생회관 앞
 - 2. 기숙사 전도를 위한 영화 상영: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오후 7:00
- ▶ **기숙사 구관강당**
 - 3.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성경과 팸플렛 배포
 - 4. Touch 새생명 축제: 9월
- ▶ **단기선교 안내**
 - 1. 이스라엘 단기선교 : 1. 22-2. 10
 - 2. 여름 단기선교 및 지방전도
· 캄보디아팀(홍종인 교수, 송기섭 목사): 6월
 - 중국/북한접경지역(박흥수 목사): 7월
 - 국내지방전도(현택환, 최종근 교수, 이향숙 간사): 8월
 - 태국팀(강신후 교수, 김철웅 목사): 6월
 - 중앙아시아팀(이영조, 황준석 교수): 7월
- ▶ **교제행사**
 - 1. 겨울수양회(2월22-25일)
 - 2. 여름수련회(6월22-24일)
 - 3. 2학기 개강 MT(8월25일)
 - 4. 전교인 체육대회(5월)
- ▶ **구제**
 - 1. 영등포 광야교회 섬김(노숙자 무료식사 배식): 매주 마지막 주 주일 오후 6:00 26동에서 출발
 - 2. 장학금 지급
 - 3. 시각 장애인 서울대학교 소품 섬김(봄, 가을)
 - 4. 크리스마스 때 노숙자 침낭전달
 - 5. 구제사역 확장(관악구)/고아후원
- ▶ **기도모임**
 - 1. 영성과 중보기도회: 매주 금요일 오후 7:30 / 26동
 - 2. 금요 교수 기도회: 매주 금 오전 7:30 / 22동 5층 소회의실
 - 3. 월례 캠퍼스 연합기도회: 매월 첫 주 금요일 오전 7:30 / 25동

서울대학교 수요채플 안내

-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6시 30분
- 장소: 서울대 26동
- 취지: 서울대 기독인들이 매주 함께 모여 하나님을 경배하고 형제 된 사귀는 나누는 장소를 확립한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도를 배우고 영혼에 깊은 평안을 얻는 시간이 되며, 각 분야에서 활동하는 기독인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학생들에게 신앙 안에 서전공분야에 대한 미래에 대한 꿈을 심어주고 관계를 형성케 해준다.
- 열린예배 지향:
 - ① 다양한 분야에서의 메신저 초청
 - ② 문화적 접근: 찬양 콘서트, 뮤지컬, 오페라, 국악
- 창조적 예배 형태를 실험하는 장
- 청교도적 전문인으로서 내면의 소양을 함양하는 장

열 두 번째 서울대 기독인 OT 일정표

시간	3/14(금)	3/15(토)	3/16(일)
7		큐티/기도회(안성훈 교수님)	파송예배(유요한 교수님) (거류민과 나그네같은 우리)
8		아침식사 ..	식사 & 정리
9		전체특강	파송 (집 / 교회로) → 단체버스로
10			
11		선택특강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12			
13		점심식사	
14		레크레이션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깜깜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15	OT장소로 고고씽 ~! (서울대 → 광림수도원)		
16			
17	등록 하세요 ~!	교회 / 선교단체 소개	
18	저녁식사 ~♪	맛있는 식사 :)	
19	저녁예배(최종근 교수님) 로마서 12:1-2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저녁예배(박동열 교수님) 이사야 6:1-13 (아버지의 심정)	오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며
20			
21	단대별로 함께 오손도손 :)	단대모임 ♥	그의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니..
22			
23	꿈나라로 ..	꿈나라로 ..	- 이사야 60:1,2

서기연(서울대 기독인 연합)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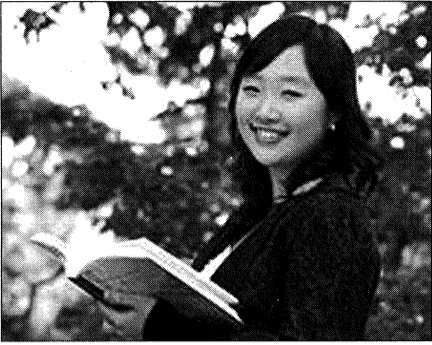
서기연이란

서울대 기독인 연합(이하 '서기연')은 서울대 안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연합대표체입니다. 현재 서울대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선교단체(IVF, JOY, UBF, 네비게이트, CCC, 인터콥, SFC, CAM, CMI, YWAM, 한기연 등)와 각 단과대학 기독인 연합 및 각 과 기독인 모임, 교회 캠퍼스 모임들이 소속 되어 있습니다. 또한 서울대기독교수협의회, 서울대교직원신우회, 서울대학교회, 관악사신우회 등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서울대를 품고 있는 교회들과도 협력하고 있으며, 학원복음화협의회 및 서울 지역 각 대학 기독인연합과도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서기연의 기본적인 운영은 네트워킹사역입니다. 서기연은 하나의 조직이 아니라, 다른 단체들의 상위단체가 아닌 연합체로서 그리스도인들간의 활발한 의사소통을 지원하며, 연합사역을 추진합니다. 서기연 소속 단체 대표들은 매월 대의원 회의를 통하여 연합사역을 논의하며, 실무 역할은 임원인 서기연 대표(1년제)와 5명 내외의 중앙위원(1학기제)들이 담당합니다.

서기연의 역사와 비전

캠퍼스 전체를 포괄하는 연합사역은 미진하였던 서울대는 1997년 서울대 기독인 오리엔테이션(이하 '오티')을 준비하면서 한 몸으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교수님과 선배들이 수험생 2만명에게 자필로 편지를 쓰고, 교회 및 언론에 홍보를 하는 등 열정을 다한 제1회 기독인 오티에는 400명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2008년, 제12회 기독인 오티를 맞게 됩니다.



4년 전 하나님께서는 한 소녀를 어떤 대학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렇지만 소녀는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잘 알지 못하고 마냥 어린 모습으로 어리둥절하며, 준비되지 않은 채로 대학 생활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매스컴과 인터넷 등을 통해서 들은 환상적인 이야기들을 들으며 대학 생활에 대한 분홍빛 꿈과 설렘이 온통 가득하였지만, 동시에 대학생들의 또 다른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소녀는 두려움과 걱정도 커졌습니다. 대학 생활에 대해서 듣게 되는 많은 이야기들, 특별히 대학의 술자리나 기타 대학 문화라고 하는 모습들, 대학에서의 공부와 진로, 관계와 같은 실질적으로 접하게 될 분야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은 소녀를 큰 두려움과 걱정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소녀는 다양한 선배들의 조언을 토대로 자신의 노력을 통해 스스로

이 모든 상황을 직면하면서 적응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입학 전부터 시작된 술자리와 선배들과 친구들과의 만남 속에서 소녀는

스스로 방향을 정하여 자신의 두려움을 해결하고 잘 적응해가기 보다는 대학 문화에 휩쓸려 다니면서 방향을 잡지 못한 채 마음 어려웠습니다. 무엇보다 소녀는 그 가운데 함께 이러한 상황을 진솔하게 나누며 함께 고민하고 기도할 수 있는 친구(동역자)를 발견하지 못함이 참 어려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녀는 우연히 인터넷 검색과 같은 캠퍼스에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 선배를 통해서 캠퍼스 기독인 연합(이하 기연)에서 주관하는 '기독인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하 기독인 오티)'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소녀는 기연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또한 기독인 오티가 무엇인지는 더욱이나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이었을까요, 그곳에 가면 '대학생활을 놓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는 소식에 반가운 마음에 소녀는 기쁨으로 등록을 하여 기독인 오티에 참여하였습니다.

기독인 오티에는 세상에서 말하는 크고 화려한 행사나 상품, 쾌락과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소녀에게 세상에서 말하듯 대학 생활에서 성공할 수 있는 관계에 대한 조언이나 전략, 명예나 권력, 세상의 지식, 보장된 미래나 커리어를 쌓아줄 수 있는 곳은 더더

욱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곳에는 소녀에게 꼭 필요했던,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 소망이 있었습니다. 세상과 비교할 수 있는 잘 갖추어진 프로그램이나 멋진 학술강의는 없었지만, 그 곳에는 대학 생활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알 수 있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와 오랜 시간 캠퍼스의 믿음의 선배들이 흘린 눈물의 기도로 준비된 강의, 워크숍 및 각종 프로그램들이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유행하고 잘나가는 친구들은 없었지만, 그곳에는 함께 대학 생활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함께 진지하게 이야기 하며, 눈물로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축복할 수 있는 믿음의 선배들, 멘토로 소녀를 지도해 줄 수 있는 선교단체의 간사님들과 목회자분들, 교수님들이 계셨습니다. 또한, 캠퍼스에 돌아가서 함께 속한 학과와 단과대학, 캠퍼스, 민족과 열방을 놓고 함께 계속하여 눈물로 씨앗을 뿌리며, 함께 전심전력으로 노력할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무엇보다도 소녀를 향한, 단 한 사람을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1박 2일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소녀는 그 시간 가운데 그녀를 캠퍼스로 부르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소녀는 그 하

시간을 이후에 들어오는 후배들과도 나누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비록 가지고 있는 달란트는 작았지만 2학년, 3학년, 4학년 계속하여 기독인 오티를 준비하며 많은 후배들을 그 자리에 초청하고 함께 그곳에 다시 나아가 자신이 먼저 받았던 큰 은혜를 조금이라도 더 나누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소녀는 그렇게 계속하여 기독인 오티를 참여하는 가운데, 기독인 오티 가운데 자신을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매년 계속해서 새롭게 한 명, 한 명, 신입생으로 들어온 소녀와 소년들을 만나주시심을 보며 참 감사했습니다.

4년간 소녀의 대학 생활에 있어서 기독인 오티는 신입생 시절 그녀를 대학으로 부르신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 안에서의 소망을 알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선배 재학생으로 대학 생활을 해 나아가는 길에 있어서는 매년 캠퍼스를 향한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하심, 한 영혼을 향한 마음을 배워가며 다시 한 번 더 자신의 캠퍼스 생활을 하나님께 처음 신입생 때의 마음으로 돌아가 올려 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소녀는 이제 졸업을 앞두고 지난 대학 생활을 돌아보면서, 기독인 오티에 대한 글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캠퍼스

주 앞에 올려드리며, 겸손히 주 앞에 먼저 감사의 제사로 올려드리는 예배의 시간입니다. 한 학년의 시작에 앞서 먼저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함께 나아와 예배 하는 가운데,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캠퍼스로 부르신 분이, 이 캠퍼스와 캠퍼스 생활의 모든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고백하는 자리입니다. 또한 예배 가운데 우리는 담대히 이 캠퍼스가 하나님께 속하였으며,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속한 캠퍼스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독인 오티를 사용하시어 캠퍼스 가운데 실로 놀라운 연합의 역사와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이루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지난 4년간 캠퍼스에서 실제로 기독인 오티에 참여하고 기독인 오티를 준비하는 가운데, 또한 선배들로부터 지난 97년부터 계속해서 이어져오는 기독인 오티와 그 이후의 캠퍼스에 대한 이야기가운데, 하나님께서 캠퍼스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들으며 참 많이 놀라고 감사하게 됩니다. 97년 기독인 오티를 캠퍼스 가운데 처음 시행한 후에, 매년 주 앞에 많은 신입생들과 재학생들이, 또한 교수님들과 교직원 분들이 다시 주께 겸손히 순종하며, 헌신함을 보았습니다. 또한 기독인 오티라는 자리를 통해,

수많은 신입생과 재학생, 교수님과 선교단체의 간사님, 목회자 분들이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가운데 함께 하나됨을 보았습니다.

기독인 오티를 아시나요 ?!

- 지난 4년간의 신입생 기독인 오티를 돌아보며 -

나눔을 알아감이 기뻐고 하나님이 주신 소망과 꿈을 들고 다시 시작할 캠퍼스 생활이 기대되었습니다. 특별히 기독인 오티 때 교수님들을 통해서 들었던 귀한 간증과 말씀들, 선배들을 통해 들었던 수많은 조언과 격려,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했던 기도제목과 비전의 나눔들은 이후 소녀가 4년간 대학 생활을 하는 가운데 계속하여 중요한 방향이 되었습니다. 또한, 'Jesus You are my First!' (2004년 제 8회 서기연 기독인 신입생 오티의 주제)라는 기독인 오티의 주제는 소녀가 대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마음속 깊이 자리 잡아, 그녀를 대학으로 부르신 하나님, 그녀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기억하며 무슨 일을 하던지 간에 그 가운데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기독인 오티에서 만나게 되었던 많은 믿음의 선배들과 동기들은 이후 4년간 소녀의 대학 생활에 있어서 진실로 주 안에 너무나도 소중한 믿음의 동역자로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학내에서 서로의 삶을 통해 늘 배우고 서로 격려하는 가운데 믿음 안에서 서로 자라가고 성숙하였습니다.

소녀는 4년 전 자신이 입학하면서 처음 경험한 그 때의 그 순간이 너무 소중한 그 때의 감격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 은혜의

로 부르심에 있어서 결코 우연이나 실수가 아닌, 그분의 필연적인 계획 속에서 너무나도 소중하게 각 지체를 당신의 아름다운 예배자로,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당신과 캠퍼스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알게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놀라운 연합의 자리를 허락하셨습니다. 각 캠퍼스 가운데, 매년 초 이루어지는 '기독인 오티'는 캠퍼스에 부름 받은 한 소녀를 만나시고, 그 소녀 안에 참 비전과 소망을 불러 넣어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자리입니다. 그렇기에 기독인 오티는 소녀가 경험했듯 '부르심에 한 소망을 배워가고 또 서로 나누어가는 자리'입니다. 두렵고 떨림이 있는 한 신입생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아와 겸손히 그 분 앞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소망과 참 비전을 가지고 대학 생활을 시작할 수 있게 하는 자리요, 또한 재학생과 교수, 그 외 캠퍼스의 복음화를 위해 부름받은 선교단체의 간사와 목회자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캠퍼스를 향한 큰 계획하심을 매년 다시 새롭게 서로 배워가며 서로 격려하며 서는 자리입니다.

기독인 오티는 또한, 우리를 캠퍼스로 부르신 하나님 앞에 한 학년이 시작하기에 앞서 주 앞에 먼저 나아와 나의 대학 생활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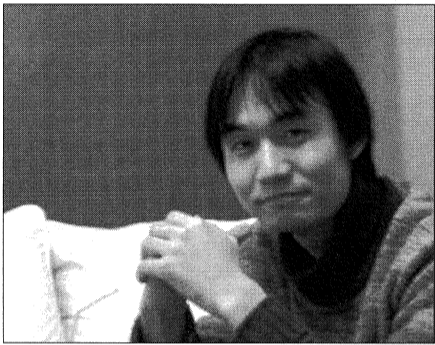
기독인 오티는 하나님 안에서 이처럼 그분의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연합의 자리요, 그 분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먼저 내어드리는 예배의 자리요, 또한 캠퍼스 안에 진정한 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지는 자리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계속해서 캠퍼스 곳곳마다 계속하여 기독인 오티가 세워지고 이어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기독인 오티가 하나님의 마음이 나누어지고, 그 마음이 실질적으로 심겨져 열매를 맺게 되는 자리로 사용됨을 믿기에, 겸손히 기도하며, 또한 캠퍼스 마다 매 해 이루어지는 기독인 오티를 놓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글을 맺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시 126:5-6)

조현희 <인류학과 04 / 필자는 04년도 서울대 기독인 오리엔테이션을 처음으로 대학 생활을 시작했으며, 현재는 인류학&종교학을 복수전공하며 마지막 한 학기를 남겨두고 주께 다음 길을 물으며 한 걸음씩 함께 달려가는 중이다.>

졸업생 간증문 새내기에게....

신입생 여러분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저는 작년 서울대 기독교 연합의 대표를 맡았던 인문대 임현우라고 합니다. 5년 전 설렘으로 내딛던 발걸음을 이제 추억으로 간직하고 캠퍼스를 떠납니다. 많은 아쉬움이 남지만, 신입생들이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기대가 됩니다. 학교를 졸업하면서, 교정에 들어서는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어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만남, 회복, 기대 이 세 단어로 이야기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만남입니다. 제 인생을 붙잡아 주었던 형이 있습니다. 저는 고등학생 때도 기독교 동아리를 하느라 지쳐서 대학가면 안 해야겠다고, 교회 봉사도 하기 싫고 그래서 유명한 교회를 돌아다녀야지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주일에 교회도 안 가고 친구들과 놀았는데, 그 다음날 몸이 너무 아팠습니다. 주님이 나를 치셨나 생각하며 앞으로 교회 잘 다니고, 선교단체도 하겠다며 고쳐달라고 구했습니다. 겨우 몸을 추스르고 약속대로 선교단체를 하게 되었습니다. 선교단체를 하면서 이런저런 것들을 배웠지만, 마음에 들지 않아서 저와 성경공부를 하던 형에게 올해는 그만하자고 (10월 달 썸이었습니다) 말하고, 사람들에게는 이 동아리는 기대가 안 된다며 나는 이제 나가겠다고 대표에게 공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형이 저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붙잡아 주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결국 공동체에 남게 되었고, 계속해서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전에 제가 알지 못하던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저의 성장의 과정에서 결정적인 순간에 붙잡아 준 그 형에게 참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회복입니다. 공동체에서 리더로 섬기고 열심히 했지만 어느새 지치고 말았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제 한 몸 먹고 자고, 살아가는데 드는 돈을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위해 열심히 하는데, 채워지지 않을까 불만을 품으면서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름 방학을 맞이해서 돈 버는 것에 매달렸습니다. 아르바이트 5개를 하면서, 꺾 때부터 잘 때까지 돈에 내 모든 관심을 쏟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삶도 지치

게 되었고 주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새벽예배를 가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가는 버스에서 찬양을 듣고 있는데,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 날 이후 이상한 일들 일어났습니다. 그동안 잊고 있었던 서울대 입학의 기쁨이 다시 느껴졌고, 내가 힘들 때도 하나님께서 도우셨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해 가을 아버지께서 돌아가신지 10년이 되었습니다. 돌아보니 아버지를 잃고 남겨진 시골 아이를 서울대로 인도해주셨고, 아이의 누이도 좋은 신랑을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고, 고생하시던 어머니도 편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지치고, 불만에 가득 차 있었지만 저희 가족의 삶을 주님께서 회복시키고 계셨습니다.

세 번째로 기대입니다. 그렇게 회복하면서 행복한 가을을 보냈습니다. 그러기에 감사하는 마음에 나도 무언가를 하고 싶습니다. 주님께 나를 사용하여 주실 것을 구했습니다. 가장 귀한 20대, 그 중 대학 시절 남은 1년을 주님께서 가치 있는 곳에 사용하여 주실 것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에 대한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부흥의 해 100주년에 주님께서 일하실 때 나를 쓰시길 구했습니다. 그렇게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을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그후 선교단체 대표에서, 인문대 대표로 그리고 서울대 기독교 연합의 대표로 주님께서 저의 길을 인도해주셨습니다. 원래 2007년은 군대에 가 있어야 할 해였지만, 캠퍼스에서 주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섬길 수 있습니다. 작년 5월 달에 오대원 목사님을 초청하여 경건운동을 했고, 그 일들이 국민일보에 기사로 실리고, 가을에는 과별로 기독교 모임을 세우기 위한 과기독 한마당을 감당하는 등 분에 넘치는 기회를 허락 하셨습니다.

이제 저는 졸업을 하고 군대에 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군대에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기독교인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하 기독교인 오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 오티를 통하여 신입생들이 인생에 의지가 될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기를, 또 주님께서 그들의 아픔을 회복시켜주시기를, 마지막으로 이 캠퍼스와 민족 가운데 주님의 소망으로 쓰이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티를 통하여서 인생을 변화시킬 만남과 회복, 결단이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아무 것도 아닌 사람을 주님께서 붙잡아 여기시고, 인도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 그분의 긍휼이 넘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임현우 / 2007 서기연대표, 언어학과 03

열 두 번째 서울대

표어 : 일어나라, 새내기!

기독교인 오리엔테이션은 서울대의 기독교 교수님과 선배들이 08학번 신입생들의 신앙, 학업, 대학생활을 함께 준비하는 자리입니다. 멋진 선배들과의 만남, 교수님 / 간사님들의 다양한 선택강의, 한마음을 나누는 레크레이션과 생동하는 예배가 있는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인생은 만남으로 결정되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과의 만남, 친구와의 만남, 배우자와의 만남 등이 그러합니다. 3월 기독교신입생 OT에서 주님과 새로운 만남, 그리고 신앙의 선배들, 교수님들과의 좋은 만남을 추천해 드립니다.

* 강신후 교수 / 재료공학부

▶ 새 마음, 새 희망, 새 비전은 OT에서! 기독교인 OT는 새로운 대학생활을 하나님 안에서 계획하는 즐겁고 알찬 시간이 될 것입니다. 교수님들과 학생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영적 축제의 시간을 기대하십시오.

* 김진완 교수 / 영어교육과

▶ 2008년 신입생 여러분께 입학축하하며, 성공적인 대학생활을 위한 축제의 마당에 초청합니다. 서울대 교수들이 당신에게 꼭 하고 싶은 이야기, 선배들이 당신과 나누고 싶은 대학 이야기,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을 서울대에 보내신 하나님의 비밀한 계획을 알고 싶지 않으신가요? 오셔서 함께 기뻐하며 이야기 합시다.

* 남승호 교수 / 언어학과

▶ 사랑스런 2008학번 새내기 여러분 진심으로 입학축하합니다! 대부분 20대에 끝 꿈들이 전 인생을 통하여 나타나게 된다고 합니다. 관악에서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꿈과 비전을 키우는데 귀하게 쓰임받길 기도합니다. 샬롬!

* 남윤자 교수 / 의류학과

▶ 신입생, 재학생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기독교신입생 OT는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요 후사임을 입증하는 좋은 기회입니다. OT를 통해 캠퍼스와 세계의 복음화에 귀하게 쓰임 받길 기원합니다.

* 박성현 교수 / 통계학과

▶ 서울대인 되고나면 자부심은 잠시이고 이제 또 다른 수준의 경쟁을 맞이하게 됩니다. 세상에서 큰 즐거움은 경쟁에서 승리하는 것이지만 그 즐거움은 잠시입니다. 진정한 크리스천으로서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기쁨으로 드러내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 박세웅 교수 / 전기공학부

▶ 기독교인 OT는 대학생활에서 진실된 친구를 만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청년의 때에 나아갈 방향을 확실히 찾을 수 있습니다. 신앙에 관계없이 신입생과 재학생 모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 박형동 교수 / 에너지시스템공학부

▶ 샬롬! 이번 OT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주제로 여러분이 새 학년과 새 학기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시작할 수 있게 준비하였습니다. 기독교인 선배들, 교수님들과 함께 비전을 다듬고 멋진 대학생활을 시작하는 첫 시간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 안성훈 교수 / 기계항공공학부

기독인 OT

을 발하라 이사야 60:1

- 일시 : 3월 14일 ~ 3월 16일
- 장소 : 광림교회 수양관
- 등록 : club.cyworld.com/snu08
- 등록문의 : 김학봉 / 컴공 06 (010-2975-8759)

▶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OT에 오세요. 당신을 창조하신 분이 당신의 대학생활과 인생에 대해 하시는 말씀을 듣고 당신의 짐을 그분께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 송재준 교수 / 에너지자원공학과

▶ 기독인 신입생, 재학생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등잔을 켜서 등잔대 위에 두어 그 빛을 비추듯,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시작이 OT에서 시작되길.

* 이원중 교수 / 물리학부

▶ 인생의 제 2막 앞에서 있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나기 원하며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OT에서 하나님을 여러분 중심에 모시길 기도합니다.

* 이은주 교수 / 생명과학부

▶ 대학입시준비에 시달려 황폐하고 상한 심령성전을 보수하는 OT, 주 여호와와의 신과 영으로 기름 부음 받는 OT, 자신과 이 민족과 세계를 향한 큰 비전을 품는 OT로 초대합니다.

* 장창두 교수 / 조선해양공학과

▶ 신입생 OT는 모든 서울대 크리스찬들이 캠퍼스에 대한 자신의 사명을 발견하는 은혜의 장소입니다. 저도 신입생 OT를 통해 하나님이 저에게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 주우진 교수 / 경영학과

▶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주권을 드리고, 감사함으로 주님만 의지하며 새롭게 시작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가진 승리의 비결입니다. 신입생과 재학생 모두를 OT로 초청합니다. 믿음의 친구들과 선배들, 그리고 교수님들과 같이 마음을 합하여 캠퍼스를 주님께 돌리지 않겠습니까? 새벽이슬 같은 주의 백성들이 일어나는 꿈을 같이 이루어 갑시다.

* 하순희 교수 / 컴퓨터공학부

▶ 청년의 때에 새로운 대학생활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으신 것으로 채워주시며, 요셉과 같이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며 인도하실 것이며, 다니엘에게 주신 놀라운 지혜의 축복이 임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 현택환 교수 / 화학생물공학부

▶ 기독인 신입생 OT를 통해 여러분과 함께 믿음과 꿈을 키울 친구, 선배 그리고 공동체를 만나시길 바랍니다. 대학생활 동안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들고 민족과 열방을 섬길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시길 바랍니다. OT는 여러분의 복된 인생을 위한 그 첫 출발이 될 것입니다.

* 홍종인 교수 / 화학부

| 2008년 | 기독인 OT를 기대합니다



서울대 기독인 오리엔테이션(이하 '기독인 OT')은 1997년, 서울대에 입학한 새내기들 중, 고등학생 때

의 신앙을 잃어버리고, 기독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찾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 한 선배님들, 교수님들의 도움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기독인 OT를 통하여 서울대 안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가 되었으며, 서울대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 제 12회 기독인 OT를 맞이까지 최근 3년을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습니다.

■ 최근 서울대 기독인 OT

▶ 2007년 기독인 OT (제11회)

- 일시: 07.3.9~3.10
- 장소: 왕성교회
- 주제성구: 욥기 23:10
- 주제: The Way

▶ 2007년 The Day 금식기도회

- 일시: 07.1.5~1.6
- 장소: 분당 할렐루야 교회
- 주제성구: 시126:5,6
- 주제: 서울대의 회개와 부흥

▶ 2006년 기독인 OT (제10회)

- 일시: 06.3.3.~3.4
- 장소: 남부장로교회
- 주제: Not Survival, But Revival

▶ 2005년 기독인 OT (제9회)

- 일시: 05.2.17~2.19
- 장소: 김포 청소년수련원
- 주제: Freshman Be Refreshed

매년 기독인 OT가 마치고 나면 참가했던 신입생, 재학생, 교수님, 간사님 구분 할 것 없이 이구동성으로 서울대를 그리고 나를 너무도 사랑하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다고, 은혜가 넘치는 자리였다고 고백합니다. 그 감동을 최전선에서 미리 맛보는 OT 준비팀에 속해 있으면서 저는 2008년 기독인 OT가 여는 때와 또 다른 특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첫째, 교수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입니다. 세대공감, 선택특강 일부 등 간

적적인 영역에서 보다 확대되어 금년 OT에는 교수님들이 학생들과 함께 활발하게 동역하고 계십니다. 매주 월요일 8시30분부터 학생회관 416호에서 있는 OT준비기도회에서 교수님은 간절히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OT 여는 예배, 아침기도회, 파송 예배 뿐만 아니라 전체 특강, 선택 특강, 단대모임을 포함한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40여분의 교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하여 준비하고 계십니다.

둘째, 가족과 같은 준비팀의 분위기입니다. 목요일 오후 6시부터 학생회관 416호에서 가지는 OT 준비 모임에는 매주 새로운 지체들이 더하여지고 있습니다. 전공도, 교회도 신앙의 색깔도 다양한 사람들이 '기독인 OT' 라는 표제 아래 이토록 친해질 수 있는지 놀라울 따름입니다. OT준비팀은 정기 모임 이외에도 1월 29일에는 광림수도원 1차답사, 2월 14일~15일에는 기독교수회관에서 준비팀엔티를 다녀오며 한층 더 두터워진 팀워크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셋째, 준비 문건들의 체계화와 공식적인 외부 후원 요청 중입니다. 과년도 OT 준비팀의 자료를 분석하고 새롭게 적용하는 한편, 금년도 OT 준비팀의 활동이 다음 세대에서도 계승될 수 있기 위하여 내용의 충실도 뿐만 아니라 틀을 갖추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대를 품고 기도해주시는 교회들에 서울대 기독인 연합, 기독인 OT 홍보와 아울러 기도와 재정으로 후원해 주시라는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1월 31일과 2월 28일 OT 준비를 위한 연합 기도회를 가지면서 저에게 강하게 다가왔던 말씀은 잠언 19장 21절입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와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우리의 근심과 걱정을 평안과 기쁨으로 돌이키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오직 하나님만이 기독인 OT의 주인되심을 고백할 수 밖에 없습니다. 3월 14일을 생각하면 가슴이 두근두근거립니다. 열한번의 지난 OT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한 자리가 될 것이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사회기연 대표 유종은 / OT준비팀

단대 기독교인 모임 소식

■ 인문기연

인기연은 인문대 기독교인 연합의 줄임말입니다. 새내기 때 서기연OT에 참석해서 처음 인기연이라는 말을 듣고 한참동안 웃었던게 기억이 나네요. 왜냐구요? 전 사람들이 인디언이라고 말하는 줄 알았거든요. 인디언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의 필요를 위해 그리고 인디언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도록, 인디언이 인문대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정말 진지하고 뜨겁게 기도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전 혼자서 배꼽을 잡고 웃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인디언을 위해 뜨겁게 기도하시던 분들을 통해 제가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다시 정리하면 우리 인기연은 인디언 가족의 모임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인디언 가족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시는 분들, 그리고 사랑하고 싶으신 분들, 인문대의 소망이 되시고 싶은 분들, 하나님

의 사랑을 인문대 안에 은은하게 나타내고 싶으신 분들, 따뜻한 가족이 필요한 분들을 언제나 환영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인 인기연은 작년까지 매주 목요일 점심모임을 가지면서 생활 나눔과 인기연 지체와 학교를 위한 기도를 하였고, 이 외에도 계절별 MT, 롯데월드와 스케이트장을 방문하여 친목을 다지기도 하였습니다. 인기연은 그 아래 각 과반기독교인 모임을 토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작년까지 활발했던 과반 기독교인 모임에는 중문과, 영문과(CLC), 국문난장반(하늘시), 공명반, 노어노문, 언어, 종교상상, 철학(철기), 동양사학과반 기독교인 모임이 있습니다. 과반 기독교인 모임은 각 과반 사정에 따라 요일을 정하여 매주 정기적으로 모여 말씀묵상, 기도와 교제를 통해 소규모의 따뜻한 사랑의 공동체를 형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 사회기연

1월 11일과 12일, 사회대 정시 논술/구술 고사 기간에 두레문예관에서 학부모 기도실을 운영하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방문하시어 자녀들을 품고 중보하셨습니다. 또한 “기도의 처소를 마련해주고 고맙다”, “사회기연을 위해 기도하겠다”는 격려도 남겨주셨습니다. 2월 24일에는 사회대 새터 장소인 충남 청양 송의 청소년 수련원 대강당에서 사회대 새터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할 수도 있는 공간에서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

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강하게 경험하는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겨울방학 기간 리더회의를 통해 08년 1학기 마스터플랜을 확정하였습니다. 정기모임은 기존과 동일하게 금요일(예배와 세미나를 격주로, 10시 30분~12시, 두레문예관), 월요일(11시 50분~12시 50분, 후생관), 아침묵상모임(8시~8시 40분, 사회기연룸 223호)으로 이루어집니다. 보다 역동적이고, 사랑이 넘치는 사회기연을 만들어갈 것을 기대합니다.

■ 경영대 기독교인 모임

지난 12월 5일에 경영대 기독교인 모임에서는 새로운 학기에 겸손한 마음으로 경영대학과 경영대 기독교인 모임 지체들을 섬길 새 대표를 선출하는 총회가 있었습니다. 경영대 기독교인 모임 자체적으로 이루어지는 릴레이 기도와 총회 전 경영대 기독교인 모임 화요일예배를 통해 총회 가운데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구하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배 후 개최된 총회에서는 경영대학 신민정(07) 자매가 새롭게 섬길 대표로 선출되었습니다. 새로운 대표의 섬김을 통해 경영대학에 하나님의 뜻이 더욱 편만해지고 경영대 기독교인 모임이 그 도구로써 더욱 더 사용받기를 소원합니다. 1월 11일은 신입생 논술 고사가 있던 날이었습니다. 경영대 기독교인 모임은 수년간 해온 전통에 따라 경영대 정문 앞 티 테이블 행사를 통해 예비 신입생들과 학부모님들을 섬겼습니다. 신입 대표를 중심

으로 모인 경영대 기독교인 모임 지체들은 이를 전부터 기도와 섬김으로 준비하였습니다. 특별히 이번 티테이블 행사 중에는 동원생활관 1층 매점에서 전기 물 끓이기 기계를 협조해주신 덕분에 큰 수고를 덜 수 있었습니다. 11일 당일에는 아침 7시에 지체들이 모여 따뜻한 차와 커피로 폭설에 의한 교통 체증으로 마음이 급해진 수험생들과 학부모님들을 위로했습니다. 더불어 경영대 기독교인 모임에서는 동원생활관 1층에 학부모 기도실을 준비했습니다. 많은 학부모님들이 방문해 주셔서 기도도 하시고, 또 간간히 답소를 나누는 모습 속에서 너무나 부족한 준비였지만 선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몸은 지치고 날씨도 너무 추웠지만 예비 신입생들, 학부모님들, 그리고 경영대 기독교인 모임 안에서 서로 좋은 교제가 넘치는 시간이었습니다.

■ 자연대 기독교인 모임

자연과학대학기독교인연합(자기연)입니다. ^^ 자기연에서는 지난 학기 자체적으로 종강예배를 드린 이후에는 별다른 일이 없었습니다. 자기연은 전체 모임은 없고 과 위주로 모임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기연의 존재는 서기연과의 연합을 위한 것이 주가 됩니다. 올해부터 새 대표가 세워졌습니다. 생명과학부 김세준(06) 전 대표가 일년동안 귀한 섬김으로 함께하였습니다. 이제는 물리학과 05학번 신장섭 학생이 새로이 대표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자기연은 아직 세력이 크지 않아 새터에서 어떠한 사역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새터에서는 한번 시도해 볼까 하였지만 대표의 머릿속에서만 그쳤습니다. 대표가 선교단체인 IVF 활동을 겸하고 있어 자기연 대표로써 온 힘을 다하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자기연은 또한 서기연에서 미등록 단대

였지만 준회원으로서의 인준 절차를 곧 밟을 것입니다. 기도해 주세요 ^^ 1. 새 대표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올바로 서 있고 자연대를 위해 기도하는 자로 먼저 설 수 있도록 2. 자기연이 서서히 틀을 잡아가는 한해가 될 수 있도록 3. 각 과기독을 위해 생명과학부, 지구환경과학부, 수리통계학부 - 모이는 인원이 10명 정도가 되어 어느 정도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교제하는 모임이 유지될 수 있도록, 모임으로 신입생들이 잘 컨택 되도록, 다음 세대가 잘 키워져서 학기나 연말에 새 대표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물리천문학과, 화학부 - 모이는 인원도 한 두명, 좀처럼 활성화 되고 있지 않습니다. 지지치 않고 인내하며 기도로 사람들을 기다릴 수 있게, 지난 일년 동안 기도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게.

■ 음기연

살롬 ^^ *하나님을 찬양하는 음기연입니다. 음기연은 서울대 음대 기독교인 학생들의 연합 모임입니다. 음기연은 서울대 음대 기독교인 학생들의 연합 모임입니다. 저희 음기연 안에는 각 과별로 기독교인 모임이 있습니다. 과기독교인 모임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 함께 말씀과 삶을 나누고, 학교와 믿지 않는 친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는 서로를 위해 중보기도를 하고 음대 내에서 겪게 되는 힘든 점을 나누기도 합니다. 저희 음대에는 간사님(김혜순 간사님 011-9668-2021)이 계셔서 신앙적인 상담도 가능합니다. 또한 음기연은 연합 사역으로, 서기연(서울대 기독교인 연합) 사역에 참여하고 매년 신입생 정시모집 때 티테이블과 학부모 기도실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이번학기는 3월 17일 6시 30분에 시청각실(55동 203호)에서 음기연 개강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2008년 5월에는

제 2회 음기연 콘서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별 모임 별도로 마음이 있는 지체들을 중심으로 정기적으로 모여서 기도와 콘서트 준비모임을 가질 예정입니다. 저희가 교제하는 커뮤니티 주소는 <http://snuconcert.cyworld.com> 입니다. *음기연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세요~* 기독교인 모임이 없는 과에도 기독교인 모임이 세워지고, 과 기독교인 모임과 음기연 모임에 풍성한 은혜와 말씀, 나눔이 있도록, 말씀을 전하실 간사님의 영 육간에 늘 강건하시도록 음기연 콘서트를 준비하는 전 과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재정이 많이 부족한데 필요한 만큼 채워지도록, 그 콘서트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기쁨의 자리 되도록 음기연 후원 계좌
농협 079-02-955544 오주연(음기연)
음기연 대표 : 오주연 / 010-2027-2531

■ 마이크모

안녕하세요! 미대 크리스찬 모임의 소식입니다 ~^^ 마이크모는 종강 이후 길고 긴 겨울 방학의 시간 동안에 정기모임은 없었지만 시간을 내어 상황이 허락되는 지체들이 함께하곤 했었습니다. 먼저는 마이크모에게 너무나 행복하고 즐거운 잠포!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제체들과 밤새 이야기를 하고 맛있는 음식을 배불리 먹으면서 지난 학기 동안에 힘들었던 피로들과 스트레스를 모두 해소할 수 있는 감사한 시간

이었습니다. 잠포 이외에 방중 활동은 영화를 보기도 했고 전사회를 함께 보러 가기도 했습니다. 분주하고 바쁜 학기 중에는 쉽게 하지 못했던 것들을 여유 가지고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다시 시작되는 학기를 앞두고 새롭게 세워질 대표와 귀한 08학번 신입생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올해도 마이크모와 함께 하실 것과 미대 안에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 예혼 (생과대 기독교인 모임)

‘예혼’은 생활과학대학 기독교인 연합으로, 학기 중 매주 정기 모임을 가져 삶을 나누고 기도하며 점심 모임 등에서 삶을 나눕니다. 그리고 부정기적인 모임 속에서 예혼의 선배와 후배, 재학생들과 졸업생들 간의 교제의 시간을 가집니다.

1. 작년 12월 30일-31일 가평에서 예혼의 송년회를 가졌습니다. 총 6명의 재학생들이 참여했으며, 아늑한 분위기 속에서 한 해를 정리하고 2008년의 목표와 비전을 나누며 다양한 놀이로 교제를 누리기도 했습니다.

2. 방학 동안 예혼 지체들은 자신들의 계획을 따라 다양한 사역을 감당하고 새 학기를 준비하며 휴식을 누렸습니다. 선교여행이나 비전트립 등을 떠나는 지체

들은 개인적으로 자신의 기도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의 짐을 감당했습니다.

3. 졸업, 취업, 입대 등 예혼 구성원의 변화가 많은 계절이었습니다. 한 형제가 입대하였으며 졸업생들이 많은 관계로 2월 말에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는 모임 및 입대하는 지체들을 기억하며 송별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4. 신입생들을 위해 재학생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새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준비하며 새터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해 일부 재학생들이 참가합니다.

도유록 / 05학번 (010-7374-0317)
양성우 / 04학번 (011-9704-1730)

■ 농생대 기독교인 연합

농기연 (농생대 기독교인 연합) 을 소개합니다 ^^

농기연은 농생대에 있는 기독교인이 함께 모여 캠퍼스와 세계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며, 찬양하고, 기도하고, 교제하는 모임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의 정

기 기도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 신입생과 재학생 여러분 모두모두 주 안에서 하나 되는 자리에 함께해요! ^^

이호성 / 바시공 06 (010- 8488-1703)
김영민 / 식생 04 (010-5430-8934)

..... 선교회단체 소식

■ SFC

하나님나라 회복과 확장을 위한 S.F.C. SFC는 캠퍼스의 젊은이들을 복음으로 변화시켜 삶의 모든 영역을 주도할 성경적 지도자를 배출하는 기독교생운동입니다. SFC는 ‘하나님 중심, 성경중심, 교회중심’의 생활원리와 종교개혁자 존 칼빈 (Jean Calvin)의 교리를 바탕으로 한 개혁주의 신앙과 삶을 추구합니다.

성경의 교훈대로 건설한 신앙 및 경건생활을 확립하여, 출석하는 교회를 바르게 잘 돕고, 사회와 국가와 열방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는 가운데 기독교 세계관으로 진지한 성찰과 참여의 자세를 견지하는 기독교청년을 양성하는 공간입니다.

하나님 뜻 아래서의 비전을 바라볼 수 있는 대학생

비전을 품고 신앙과 학업과 인격을 준비하는 대학생

사랑의 공동체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대학생

이러한 멋진 대학생이 되길 소망하는 하나님의 사람, 바로 당신을 기다립니다.

▶ 활동소개

서울대SFC는 전체 모임인 <큰모임>을 주 1회, 성경공부와 개인경건생활 및 세상을 살아가는 바른 그리스도인 양성을 위한 훈련모임인 <작은모임>을 주 1회, <

점심기도회)와 <아침기도회>를 매일, 관심분야에 대한 개혁적 세계관에 입각한 연구모임인 <영역별 소모임>은 관심자들의 자발에 의하여 갖고 있습니다.

<17대 대선 부재자 투표운동>

또한 개혁주의 신앙을 삶 속에서 실천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며,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나타내는 산 증인이 되 고자,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정한 일련의 사회참여적 문화변혁적 운동들을 캠퍼스 안에서 펼치고 있습니다. 그 예로 지난 대선 · 총선 · 지방선거 기간에 성경에서 강조하는 공의로운 지도자 선출을 위한 공명선거운동의 일환으로 <서울대 부재자 투표소 설치운동>을 제안하고 여러 단체들과 연합하여 학내 구성원의 투표참여를 독려하고 투표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운동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밖에 이웃사랑 · 생명사랑 실천인 <장기기증서약운동>을, 정직에 관한 학우들의 주의와 관심을 환기하기 위해 <커피추방운동>을, <파키스탄 대지진 구호 모금운동> 등을 펼쳐왔습니다.

동아리방 : 학생회관 419호
위원장 : 김이레 / 약학과 06 (011-9397-2546)
간사님 : 안영주 / 017-552-7645
커뮤니티 : http://snusfc.cyworld.com

■ CCC

안녕하세요? ^o^* 행복하고 강한 서울대 C.C.C.입니다.♡ CCC는 한국의 수많은 대학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는 197여개국에서 활발하게 주님 나라를 위해 일하고 있는 초교파적인 학생 선교 단체입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C.C.C는 주님의 지상명령 성취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민족의 미래를 보려거든 서울대를 보라 서울대의 미래를 보려거든 C.C.C.를 보라” 우리 서울대 C.C.C.는 이러한 비전을 가지고 기도와 말씀, 사랑과 전도에 힘쓰고 있습니다. 가족 같은 생명의 모임, 순(荀)! 매주 화요일 6시 30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임이 있고, 예배 후에는 함께 간식도 먹고 이야기도 하는 즐거운 교제 시간도 가집니다. 매주 목요일 6시 30분, 성경공부와 교육시간이 있고, 이후에는 리트릿이 있습니다. 또, 전도하고

■ JOY

“대학생활의 기쁨은? Finding JOY♡” 저희는 유쾌한 서울대학교 JOY (서울대학교 조이선교회, 약칭 S-JOY)입니다. JOY는 무슨 뜻일까요? 물론 사전적으로는 ‘기쁨’이라는 뜻의 단어이지만 JOY는 『Jesus 1st, Others 2nd, You 3rd and spell JOY』 예수님을 첫째로, 이웃을 둘째로, 나 자신을 마지막에 둘 때, 참된 ‘기쁨’이 있음을 말합니다.

S-JOY의 매 주 정기모임에는 테마(주제)가 있고 웃음과 감동이 있습니다. 관악 모임은 매주 목요일 6시에 음대 55동102호에서, 연건모임은 매주 화요일 7시에 학생회의실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방학 때는 관악과 연건이 연합으로 모입니다.

그리고 매주 정기모임을 준비하는 MC, Fellowship, Multimedia, Weekly, Music 5가지의 Team 모임이 있습니다. Team안에서의 상호 돌봄과 깊은 나눔을 통해 같이 성장하고 각자 재능과 관심사에 맞게 정기모임을 함께 준비하는 모임입니다. 매년 1학기에는 신입생을 위한 N-JOY Cell이 따로 운영됩니다.

■ CAM

CAM 대학선교회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대학부에서 출발한 선교단체로, 현재 전국 60여개 캠퍼스에서 활동하고 있는 성령충만한 공동체입니다.

2007년 선교활동사진
CAM에 오면 4가지 Powerful한 운동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1. 오순절적 초대교회 성령운동
2. 비전, 지성, 열성의 자발적인 학생운동
3.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대사운동

싶으신 분들을 위해 한 학기에 한 번 LTC(Leadership Training Course) 훈련이 있고, 매주 ‘전도타임’이 있습니다.

평소에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해주고 싶던 친구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지 배워보고, 복음을 들고 캠퍼스를 밟아보지 않으실래요? 올해에는 특별히 한국 C.C.C가 50주년을 맞아 제주도로 여름수련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4박5일 동안 지체들과 함께 뜨거운 회복과 성령충만의 시간을 갖고, 이후에는 “거지 전도”도 체험해보는 기회죠. 2월달에는 순장수련회가 있어서, 순장의 삶을 살기 원하는 사람들이 훈련을 받죠. 행복하고 강한 서울대 C.C.C.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연락처 : 이지애 / 국악06 (017-655-3488)
최재관(원예06) 010.4535.2025.
http://snuccc.cyworld.com, 학관 420호

또한 학기 중의 성경연구(창세기, 로마서, 마태복음, 영어성경연구등)와 방학 중의 제자훈련(개인영성훈련, 성경개관, 예수를 전염시키는 사람들, 개인성경연구 등)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6~8주로 이루어지는 성경연구와 제자훈련을 통해 개인적으로 깊이 하나님과 성경에 대해 알아가게 됩니다.

방학에는 수양회가 있습니다. 여름수양회는 4박5일로 전국 수양회로 모입니다. 특별히 올해는 JOY창립 50주년 Global Conference로 모입니다. 그리고 겨울방학 중의 수양회는 3박 4일로 S-JOY 자체 테마별 수양회가 있습니다. 또한 해외 단기선교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중국, 캄보디아, 키르기스스탄, 인도네시아, 태국, 인도 등으로 2주간의 짧은 단기선교 또는 6개월에서 1년동안의 단기선교를 다녀올 수 있습니다. 그 외에 기도회모임, QT나눔모임, 자발적인 모임 등이 있습니다.

대학생활 무엇을, 언제, 어떻게 해야할지 너무 고민되는 바로 지금. JOY에서 대학생활을 시작하세요!! ^-^

4. 세상과 열방을 새롭게 하는 선교운동
양육이 있는 따뜻한 공동체를 원한다면, 자신의 비전을 향해 나아가기 위한 보금 자리를 찾는다면
꿈을 향해 뛰어보고, 날아보고 싶다면 — CAM과 함께해요 ^^

C.L : 권순욱 / 010-9907-5715
Cyworld Club : Seoullcam.cyworld.com

● 서울대 찬양팀으로 오세요~

〈서울대에서 찬양소리가 끊임없이 울려 퍼질 날을 기대하며..〉

안녕하세요? 저희는 서울대찬양팀 SNU-Worshiper입니다. 학교에서 예배가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특히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공동체입니다. 저희가 하는 일들은 서울대기독인연합에서 하는 큰 행사(개강예배, 종강예배, 기독인OT등)들을 찬양팀으로 섬깁니다. 그 외에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에 교회나 단체들의 요청에 따라 여러 수련회나 집회를 섬기는 일들을 합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모임 때마다 이런 사역들을 준비하나구요? 아닙니다. 매주 금요일에 정기모임이 있고 모임을 통해 예배에 대한 음악적인 이론에 대한 공부도 하고, 예배에

대한 생각들을 나누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에 대해 더욱 다가가고자 합니다. 그 외에 악기들에 대한 워크샵, 큰 집회들 참석 및 feedback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다른 공동체들에서 쉽게 느낄 수 없는 유쾌함과 사랑을 마음껏 느낄 수 있습니다! 확신합니다! ^^ 그럼 찬양팀에 합께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저희에게 필요한 것은 좋은 목소리도 탁월한 악기연주 실력도 음악적 지식도 찬양팀 경력도 아니라 바로 서울대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한 예배가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입니다.

이재민 / 통계 06 (010-9982-1106)

■ YWAM

예수전도단은 본래 미국 남 장로회 소속의 선교사이신 오대원(David E. Ross) 목사님에 의해 창설되었습니다.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예수전도단이라는 명칭은 고인이 되신 대천덕 신부님과의 논의 후에 결정되었습니다.

Planted Community로서 말씀이 생활과 공동체에 실천적으로 적용될 것을 위한 실험적 공동체였던 예수원과의 정신적 유대를 공유하되 Moving Community의 특성을 최대한 살려 복음전도와 예배의 실천을 강조한 공동체가 될 것을 소망하는 뜻으로 예수전도단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이후 1970년대 Youth With A Mission(이하 YWAM)의 설립자인 로렌 커닝햄의 전도여행팀을 섬기게 된 것을 계기로 예수전도단과 국제 YWAM과의 협력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현재까지 이어져 오게 되었습니다. 예수전도단은 대학생들의 기도모임에서 사역의 근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휴교령이 자주 내려진 1970년대, 공릉에서 매일 모여 장시간을 기도하고 경배하던 학생들의 모임이 지속적으로

화요일 마다 1000여 명이 모이는 모임으로 발전하였고, 예배 때 마다 성령께서 강하게 일하심으로 큰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함께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지금까지도 지속적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많은 젊은이들이 저희 공동체에 합께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엘을 통해 자녀들이 예언하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게 되리라고 말씀하신 때가 성령께서 세계 곳곳에서 일하고 계신 바로 이때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젊은이들을 사용하셔서 정치와 경제와 사회, 세계 곳곳의 미전도 종족을 회복시키시는 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학관 416호 김은경 019-518-4625

모임시간 화요일 정기모임 오후 6시 학교내 (문의 바랍니다)
목요일 캠퍼스 워쉽 오후 6시반 4호선 명동역, 2호선 을지로 3가역 영락교회
중보기도 모임 매일 오전 12시 학관 416호
묵상모임 매일 오전 8시 24동 (문의 바랍니다)

■ 한사랑 선교회

1971년 10월 19일 주님의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체험하고 선교의 부르심을 받아 한국에서 태동된 모임이다. 인격의 생명화(거듭남)와 삶의 생명화(이 생명의 모든 영역에 빛으로 드러나는 것)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만유와 하나되게 하기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선교 활동으로는 국내선교, 대학선교, 틈선교, 직장선교, 농어촌 선교, 해외선

교, 특수선교, 찬양선교, 드라마선교, 시청각선교, 문서선교, 의교선교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으며 7단계 교육과 은사별 학교를 통하여 영적인 성장을 이루며 미국에 있는 자매결연학교와 연결된 한사랑 선교 신학원은 사역자들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초교과적이고 복음적인 한사랑 선교회는 이스라엘을 향한 주님의 마음에 앞도려 순복하며 지금도 기도로 무릎 꿇고 있습니다.

■ ESF

안녕하세요// "ESF" 입니다 ^^

성경공부와 제자훈련을 통해 캠퍼스 복음화, 통일성서한국, 세계선교를 목표로 하는 복음주의적 초교파 학원선교단체입니다.

ESF 캠퍼스 사역

1. 일대일 성경공부

'양과 목자'라는 관계 속에서 일대일로 성경과 삶을 배웁니다. 길(교리), 창세기, 로마서, 출애굽기, 빌립보서 등 탁월한 본문 중심 성경공부의 진수를 맛볼 수 있는 모임입니다.

■ IVF

안녕하세요 한국기독교학생회 IVF입니다. 이제 따스한 햇살이 긴 겨울의 시간을 지나 캠퍼스의 문을 두드리고 있네요. 처음 캠퍼스의 생활을 시작하게 될 08학번들을 축복하며 캠퍼스 가운데 복음의 물결이 흘러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겨울 수련회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며 순종함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로 선택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캠퍼스의 하나님 나라를 세우며 공동체를 섬기는 새로운 리더들을 양육하는 2주간의 LTC(리더훈련)도 은혜가운데 마쳤습니다.

지난 2월 14-16일에는 소금지부가, 18-20일에는 빛지부가 다음학기의 비전을 새롭게 하고 전략을 세우는 회의인 챕터를 다녀왔습니다. 이를 통해 새로이 리더가 된 3년차 리더들과 기존 리더들이 팀워크를 맞추고 캠퍼스 복음화를 향한 열정을 나누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 UBF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요한복음 5:25)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번 겨울 방학 때는 '일용할 양식' 성경 공부를 통해 성경 말씀이 금보다 더 좋고 꿀보다 더 달다고 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 (시편119)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우리의 영혼을 쫓겨 정도로 강력한 힘이 있지만(히브리서 4:12) 너희가 온 마음으로 구해야 하나님을 만나리라고 한 것(예레미야 29:13)을 보면 우리가 이 맛(?)을 알기 위해서는 인내와 열심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 동아리는 여러분을 말씀에 푸욱 담가드릴(?)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먼저는 매주 선배와 일대일로 성경공부를 합니다. 후배들이 성경을 잘 소화할

2. 그룹 성경 공부

2~12명의 지체들이 모여 4복음서를 공부하며 성령의 임재 속에 삶을 나누는 그룹모임입니다.

3. 예배 (금요일 오후 6시)

매주 벌어지는 깊이 있는 말씀과 뜨거운 교제의 축제!

4. 전국 수양회

여름과 겨울방학 두 번에 걸쳐 다녀오게 되는 말씀과 찬양의 성령 축제!

함께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

학생대표 : 박소희 / 010-3614-5640

김익중 / 010-8811-2669

3월 중순에는 <신입생활영페스티벌>을 가집니다. 신입생들을 축복하며 기독 선배들과 교제하는 열린 모임입니다. 이번 학기에도 캠퍼스 예배와 소그룹 모임, 아침기도모임이 계속 흘러갑니다. 새 학기를 맞이하며 분주한 일상 속에서도 하루 하루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체험하며 평안 가운데 거하시길 기도합니다.

<IVF의 정기모임을 소개해 드릴게요.>

LGM(큰모임):매주 화 오후 5시반 28동-공동체적인 예배와 교제

BBS1 모임-매주 목 오후 5시반 -1년차들을 위한 강의와 소그룹 성경공부

DPM(기도모임)-매주 월-정오, 화~금-오전 8시, -기도회

빛지부 김진명 / 재료 05 (010-5114-7543)

소금지부 이규겸 / 경제 04 (010-8397-0551)

수 있도록 선배들이 먼저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한 말씀을 글로 쓰며(소감) 준비한답니다.

그리고 캠퍼스 바이블 아카데미도 있지요. 새 학기 3월 18일부터 20일에 열리게 될 바이블 아카데미에는 이제 새로운 학기를 시작하는 후배들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주제로 성경 이야기와, 캠퍼스에서 산전수전 겪은 선배들의 진솔한 인생 고백 '대학생활 체험기'가 있습니다. 바이블 아카데미는 이후에도 매주 동아리방에서 열리며 시절을 따라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씀을 공급해 줄 거예요.

중간고사가 끝난 즈음인 4월엔 학교를 잠시 떠나 자연 속에서 쉬며 놀며 말씀을 듣는 봄 나들이 MT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물론 주일 예배도 있습니다. 동아리 선배들과 함께 낙성대에 있는 UBF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요~! 올 봄 학기에는 마태복음이 1장부터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